



AgEcon SEARCH
RESEARCH IN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The World's Largest Open Access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Digital Library

This document is discoverable and free to researchers across the globe due to the work of AgEcon Search.

Help ensure our sustainability.

Give to AgEcon Search

AgEcon Search

<http://ageconsearch.umn.edu>

aesearch@umn.edu

*Papers downloaded from **AgEcon Search** may be us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and personal study only. No other use, including posting to another Internet site, is per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owner (not AgEcon Search), or as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Fair Use, U.S. Copyright Act, Title 17 U.S.C.*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 분석*

마상진** 김남훈***

Keywords

청년 창업농(young beginning farmers), 농촌 정착(settlement in rural community), 토빗 모델(tobit model), 순위 로지스틱 모델(ordered logistic model)

Abstract

As aging is the biggest problem in the rural community of South Korea, fostering young farmers is the most effective policy to solve the aging problem. Thu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 young beginning farmers' successful settlement in rural communities. We used the young beginning farmers' settlement survey which was conduct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n 2017. We analyzed young beginning farmers' income and their quality of life for their successful settlement by employing left-censored tobit an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succession of a farm from parents, sufficient start-up funds, and keeping the books are the significant factors to increase young beginning farmers' income. The results also show that low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and enough agricultural income for a living are the significant factors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차례

- 1. 서론
- 2. 선행연구 검토
- 3. 분석 자료와 모형
- 4. 분석 결과
- 5. 결론

* 이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고령화 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마상진·정은미·김경인 2017)에 실린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 후 논문화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교신저자. e-mail: hoonkim@krei.re.kr

1. 서론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지속 가능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농가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수준이다<표 1>.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2000년대 약 9만 1천 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약 3만 2천여 명, 그리고 2015년에는 1만 4천여 명으로 감소하여 지난 15년간 연간 11.6%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60세 이상 고령 농가는 2000년에 전체 농가의 50%를 넘고, 2015년에는 68.3%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재 청년 농가는 네 마일당 한 농가가 있고 청년 농가 하나가 100호 이상의 고령 농가를 책임지는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고령화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농업계 학교 육성, 1980년대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990년대에 한국농수산대학 설립 및 운영,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을 펼쳐왔으나 여전히 청년 농업인의 부족 문제는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표 1. 농가 경영주의 연령 분포 변화

연령대	2000		2005		2010		2015		2000~2015	
	증감	변화율	증감	변화율	증감	변화율	증감	변화율	증감	변화율
39세 이하	91,516	(6.6)	42,392	(3.3)	33,143	(2.8)	14,336	(1.3)	-77,180	-11.6
40~49세	237,737	(17.3)	185,849	(14.6)	140,479	(11.9)	84,025	(7.7)	-153,712	-6.7
50~59세	348,067	(25.3)	302,852	(23.8)	287,139	(24.4)	246,824	(22.7)	-101,243	-2.3
60~69세	479,485	(34.8)	430,473	(33.9)	352,427	(30.0)	332,158	(30.5)	-147,327	-2.4
70세 이상	226,663	(16.5)	311,342	(24.5)	364,130	(31.0)	411,145	(37.8)	-184,482	4.0
합계	1,376,198	(100)	1,270,526	(100)	1,175,622	(100)	1,087,726	(100)	-288,472	-1.6

자료: 통계청(각 연도); 마상진·정은마·김경인(2017) 재인용.

프랑스, 일본과 같은 농업 선진국은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농가 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프랑스는 EU 공동농업정책 차원의 청년 농업직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외에 신규 청년농(40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들에 원화로 약 2,000여만 원의 기본 수당(Dotation Jeunes Agriculteurs)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입 정책을 1970년대부터 실시하여, 10%대의 청년농 비율을 현재 2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일본은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심각하여 청년농의 비중이 과거 우리나라의 수준보다 낮았다. 그러나 프랑스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12년부터 청년취농부금(45세 미만 청년농에게 최장 7년간 기초생활비 지급, 우리 돈으

로 연간 1,200만 원 정도) 제도를 추진하여 제도 시행 5년 정도가 지난 현재,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청년농의 비중이 우리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들 국가 사례는 농가의 고령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대세가 아니라 국가가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마상진·김정인 2017).

그동안 다양한 정책들이 농업인력 육성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다. 우선 김정호·마상진(2005) 연구에서는 신규 취농을 위한 교육 훈련 확충, 신규 취농 희망 청년들을 위한 취농 정보 및 상담 제공, 농업 경영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족경영협약 도입, 그리고 신규 취농 통계 체제 마련을 제안하였다. 마상진·장기환(2008) 연구에서는 기존 농촌의 영농 관련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 단계적 취농 준비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영농 도제 프로그램 지원, 농업법인 활성화, 신규 취농자¹ 네트워크 활성화 및 경제적 자본 형성 지원,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신규 취농 지원을 위한 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마상진·박대식·김강호(2010) 연구에서는 후계농 선정 행사를 이벤트화하고 영농기반이 취약한 신규 후계농의 경제적 자본 형성 지원 강화, 육성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운영, 민간 주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기반 지원을 제안하였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업계 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농업계 학교 교육내용 체계화 및 현장실습 내실화 지원(박동열 외 2012), 고등학교 단계의 국립 농고 설립 제안(김현수 외 2014), 그리고 농고와 농대 교육 개편과 더불어 졸업 이후 커리어 패스를 창업과 승계로 나누어 개발하는 정책(정제영 외 2015)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정호 외(2016) 연구에서는 청년농을 신규 창업농과 승계 창업농으로 구분하고 창업 준비단계에서 차별화된 연수를 이수할 경우 창업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효과적 사후관리를 위해 청년농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청년 창업농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황 진단과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청년 창업농에 특화된 다양한 정착 실태분석이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창농 유형별 준비과정, 창업 초기에 겪는 어려움이 청년 창업농의 정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별화된 분석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단순한 대안 나열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농가 고령화에 대비해 청년 농업인 육성이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라 보고 청년 농업인의

1 마상진·장기환(2008)의 연구에서는 신규 취농을 “새로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행위”로 “농업 생산 분야에 가족 경영체로 창업하거나 부모님의 농장을 승계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또한, 신규 취농자는 “신규 취농을 준비하거나 취농 이후 농업 경영이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을 청년 농업인 정착 관련 설문 자료를 토대로 실증 분석하였다. 정착 성공의 척도를 농가의 소득과 삶의 질에 대한 만족으로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특성, 창농 과정, 농가 경영 특성, 지역과의 관계, 개인적 특성이 청년농의 정착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청년농의 정착단계

청년농의 나이 기준과 관련하여 35세부터 45세까지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일본(日本 農林水産省 2017)의 경우 청년취농급부금의 수급 대상자를 정하면서 45세 미만 농업경영주로 한정하고 있는가 하면, EU(EC 2016)는 청년농업인직접지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대상자를 4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다. 주요 국내의 청년 농업인 관련 단체(Europeancouncil of young farmers,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CEJA, 한국4-H본부)에서는 35세를 기준으로 회원 가입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² 청년농의 정착과 관련하여 Johnson et al.(2001)은 창농 이후 10년 정

표 2. 청년농의 정착단계

단계구분		설명
예비	잠재기 (Recruits)	농업에 대해 흥미·적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농업을 자신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 교양과목으로 농업 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농가 출신자
	탐색기 (Explorers)	농업을 자신의 직업으로 탐색 중인 사람
	계획기 (Planners)	농업인이 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반 여건을 준비 중인 사람
초보	개시기 (Start-ups)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사람
	재구조기 (Re-strategists)	영농경력이 4~7년 정도로 취농 시작기의 영농구상을 재조정하거나 재구조화하고 있는 사람
	정착기 (Establishing)	농업경영, 시장확보, 기타 생활 등에서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든 농가

자료: Johnson et al.(2001: 5-6); 마상진 외(2008: 12) 재인용.

2 이 연구에서 청년 농업인은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도가 소요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단계를 잠재기, 탐색기, 계획기, 개시기, 재구조기, 정착기 등 6 단계로 구분하고 구체화하였다. 이 단계 구분에 의하면 관련 자원과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한 개시기(startups)를 영농 시작 이후 3년까지로 보고 있었다.

청년 창농 시 경험하는 장애요인과 관련하여 Johnson et al.(2001)은 청년 창농의 환경을 크게 기술 및 지식(Skills and Knowledge), 가족 및 지역사회(Family and Community), 자원 및 시장(Resources and Markets) 등으로 나누었다. Greendale et al.(2004)은 미국의 창업 농업인들이 접하는 핵심적 도전요인을 ① 지식, 훈련, 기술 지원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Information and Education), ② 재정 지원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③ 토지 접근성(Access to Land), ④ 시장 접근성(Access to Markets)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Reeve&Stayner(2006)는 호주의 창업 농업인 문제를 연구하면서 영농분야에 신규 진입 시 발생하는 문제나 현안을 ① 자본 및 신용에 대한 접근성, ② 토지 접근성, ③ 경작/사육 권리, ④ 학습 기회, ⑤ 시장 접근성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마상진·정기환(2008: 71)은 이들 선행연구와 기존의 국내 창농 관련 연구(서규선·변재면 2001; 김정호·마상진 2005; 강대구 2006) 분석을 바탕으로 창업농의 진입장애를 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 네트워크 등 네 가지로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이들 진입장벽의 영향은 각 준비 그룹마다 차이가 있는데 농업계 학생은 사회 네트워크 요인과 시장 요인, 귀농을 준비하는 일반인은 전문성 요인, 이미 창농한 농업인은 자본 요인과 관련된 장애를 더 많이 겪는다고 하였다.

2.2. 청년농의 성공정착 관련 선행연구

청년농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다양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양적 기준으로 농가 소득, 질적 기준으로 삶의 질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우선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농업인의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주요 연구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최재혁·고석남(2005) 연구에서는 농가 소득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농가의 농업 소득은 전업농일 경우, 도시 근교의 평야 지대일 경우, 화훼, 채소, 과수농가일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산규모가 클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농가 소득은 증가하며 학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 외 소득은 여성일 경우, 겸업농일 경우, 도시 근교일 경우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농업 외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축산규모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상진·정기환(2008) 연구에서는 창업 농업인이 직면하는 각종 장애 요인으로 자본과 전문성 부족, 시장과 사회 네트워크 부재를 진입 장애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계적 취농 준비를 위해 취농 도제 시스템 지원, 농장 취업 활성화, 경제적 지원, 영농 관련 교육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김제안·채중훈(2009) 연구에서는 농가 유형별 농가 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업농의 경우 축산소득과 1인당 농업 생산성, 패리티지수가 농업 소득 결정요인으로 추정했지만, 겸업농가의 소득은 1인당 농업 생산성, 농작물소득, 1인당 GNI, 1인당 농업 노동생산성을 결정요인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농가 소득의 안정을 위해서 1인당 농업 노동생산성 향상과 축산소득의 안정화를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정진화·노재선·조현정(2013) 연구에서는 농가의 고령화가 농가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현재 농업인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경영주 나이별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농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같은 연령층 내 양극화도 뚜렷하여 40대 내 양극화는 농업 소득의 양극화, 70세 이상 고령농의 양극화는 농외소득의 양극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권오상·강혜정(2013) 연구에서는 농가 소득과 관련하여 농가 개별 특성과 함께 농가가 속한 지역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별 농가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 모두가 농가 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농업 소득은 경지면적이나 전업농이 많은 지역과 같은 생산여건이 좋은 지역일수록 증가하고 농외소득은 인구성장률 등과 같은 도시화 진행속도가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서 농가가 속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농업인, 특히 귀농·귀촌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주요연구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박공주·윤순덕·강경하(2006) 연구는 귀농인이 농촌 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관련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서 귀농인의 현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영농교육을 통한 준비가 충실할수록, 귀농 자본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관계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강희숙·이도희(2004) 연구는 충남 서해안 지역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충남 서해안 지역 농촌 주민들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삶의 질이 가장 높았으나 생활환경과 관련된 삶의 질은 가장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증 분석을 통해 농촌에 오래 거주할수록, 가족 구성원이 건강할수록, 남자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주거 및 정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문승태·김소라(2012) 연구에서는 귀농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인식 수준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귀농인들은 가족관계와 자아실현에 높은 인식 수준을 보인 반면 경제활동과 지역 환경 부분에서는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성 귀농인이 남성 귀농인보다 삶의 질 인식 수준이 낮았으며 농촌 생활 경험이 있는 경우와 고향으로 귀농을 한 경우 삶의 질 인식 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귀농인의 노력뿐 아니라 귀농지의 선택이 중요함을 보여주었고 정책 방향으로 농촌 경험이 없는 귀농인에 대한 귀농 교육 증대를 제시하였다.

홍성권 외(2013) 연구는 도시민과 귀촌인의 삶의 질 차이와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는 귀촌인이 도시민보다 높았으며 귀촌인의 삶의 질은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 내적 가치 순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귀촌인의 삶의 만족도는 절대적 소득수준에 좌우되지 않으며 귀촌인의 자기 주도적 성향은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귀촌인의 귀촌 지역 내 주민과의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귀촌인의 이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였다.

3. 분석 자료와 모형

3.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7년 실시한 40세 미만 청년농 정착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는 전국적으로 이뤄졌고 총 504명의 표본 중에서 소득 관련 설문과 승계 창업 관련 질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농지면적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청년 창업농 41명과 영농경력 오기자 1명을 제외하고 최종 462명의 표본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 변인은 청년 창업농의 성공정착의 척도로, 현재 소득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였다. 경제적·양적 성공 척도를 소득, 사회적·질적 성공 척도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로 본 것이다. 우선 현재 소득으로 청년 창업농의 현재 농업 소득과 농가 소득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농업 소득은 농산물 매출과 관련 소득이며 농가 소득은 농업 소득과 농외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의 합이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만족 변수는 농업인으로서의 만족을 5단계 리커트 척도(매우 불만족, 불만족한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하는 편)로 분석하였다.

청년 창업농의 소득 관련 변인들은 관련 선행 연구(최재혁·고석남 2005; 마상진·정기환 2008; 김제안·채종훈 2009; 마상진·김강호 2010; 마상진 외 2013)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창농 과정의 특성이다. 창농 특성 변인으로 승계 창농 여부, 창농 교육 기간, 창농 자금 규모, 그리고 법인 경험의 여부를 고려하였다. 승계 창농 여부는 처음 농사를 지을 때 토지를 승계받거나 부모와 함께 경영했다고 답변한 경우 승계 창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답변은 신규 창업으로 분류하였다. 창농 교육 기간은 청년 창업농의 취농 전 농업 준비 교육·연수를 받은 총 기간으로 하였다. 창농 자금의 규모는 청년 창업농의 농사 시작을 위해 준비한 자기 자본의 규모로 하였다. 또한, 법인 경험 여부는 창농 전 농업법인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경험의 여부를 이용하였다. 두 번째는 영농경력이다. 영농경력을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한 연도에 조사 연도의 차를 이용하였다. 세 번째는 농

3 이 조사는 마상진 외(2017) 연구의 목적으로 전문 조사업체 칸타코리아에 의해 영농 4-H회원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7일~9월 8일 동안 면접 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조사내용은 창농 준비, 농업경영실태, 지역 활동 및 삶의 질 실태, 청년농 육성정책 평가와 요구 등이었다.

가 경영 특성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가 경영 특성으로 부기 기장의 여부와 농업법인 참여 여부를 이용하였다. 부기 기장의 여부는 농업 경영과 관련하여 부기 기장을 하는 경우 부기 기장으로 분류하였고 현재 부기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부기 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농업법인 참여 여부는 청년 창업농이 현재 농업법인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참여로 분류하였고 현재 참여하지 않는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더라도 참여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통제 변인으로 개인 특성, 농지 특성, 현 농가 경영 역할을 고려하였다. 개인 특성으로 나이, 성별, 세대원 수, 결혼 여부, 대출 여부를, 농지 특성으로 농지면적, 시설 재배 면적, 가축의 사육 두수를, 농가 경영 역할로 종업원, 현재 경영주, 그리고 일부 책임 경영 여부를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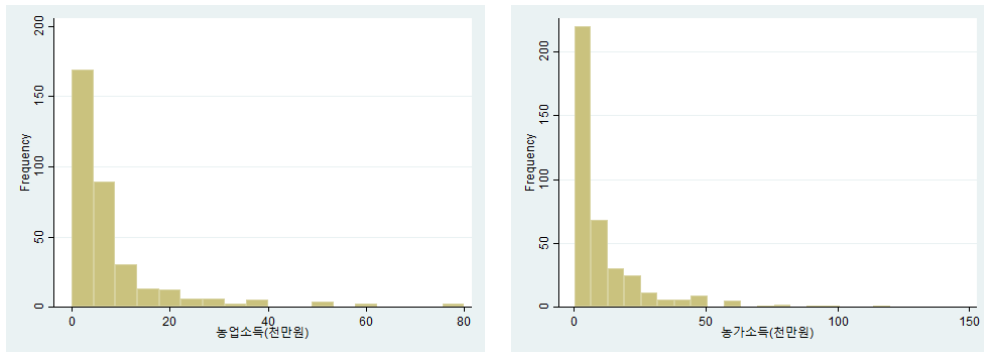
청년 창업농의 삶의 질 관련 변인들은 관련 선행 연구(박옥임·김정숙·정영해 2004; 김숙영·손신영 2012; 홍성권 외 2013; 허철무·하규수 2014)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지역연대 특성이다. 지역연대 특성으로 멘토의 유무, 주민과의 왕래 여부, 지역 활동 참여 여부, 지역의 기대 여부, 그리고 지역 갈등의 여부를 고려하였다. 멘토의 유무는 창농 준비 전, 또는 현재 농업 경영 관련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멘토의 유무를 이용하였다. 주민의 왕래는 청년 창업농이 주민과 거의 왕래가 없는 경우 왕래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고 최소 연 3~4회 왕래하는 경우 왕래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지역 활동 참여 여부는 청년 창업농이 농업 관련 조직의 위원 혹은 임원으로 활동한 경우 지역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지역의 기대 여부는 청년 창업농이 본인이 지역 농업의 일꾼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면 지역의 기대가 있다고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갈등은 농촌의 기존 마을 주민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지역 갈등이 존재한다고 분류하였다. 두 번째로는 청년 창업농의 소득 변인을 고려하였다. 우선 농가 소득 규모를 변인으로 이용하였고 이는 농업 소득과 농가 소득을 이용하였다. 또한, 가용 소득 규모를 변인으로 이용하였고 이는 설문 지상 현재 농업 소득으로의 생계 가능 여부를 이용하였다. 한편, 삶의 질 관련 통제 변인으로 연령, 성별, 세대원 수, 결혼 여부, 그리고 대출 여부와 같은 개인 특성을 이용하였다.

3.2. 분석 모형

이 연구는 청년 창업농의 농업 소득과 농가 소득, 그리고 삶의 질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관련 변인을 설명 변인으로 설정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청년 창업농의 농업 소득과 농가 소득은 분포가 0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청년농의 농업 소득에서 소득이 0인 경우는 123명으로 약 26.6%, 농가 소득에서는 77명으로 약 16.6%이다. 이러한 0 값이 누락 변수(missing variable) 또는 무응답 변수(nonresponsive variable)가 아니라 실제 관찰되는 값으로 볼 수 있다.⁴ 또한, 0 이상의 관찰 값은 연속 변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그림 1>. 따라서 이 연구는 청년 창업농의 농업 소득 및 농가 소득을 종속 변수로 하는 좌측 절단(left-censoring) 토빗(tobit regression) 모델을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Amemiya 1973; Greene, W. 2008).

그림 1. 청년 창업농의 농업 소득 및 농가 소득 분포 현황 ¹⁾



주: 소득이 0인 대상자를 제외한 분포임.
 자료: 저자 작성

이를 근거로 회귀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토빗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begin{cases} y_i^* = x_i' \beta + \varepsilon_i, \quad \varepsilon_i \sim N(0, \sigma^2) \\ y_i = y_i^* \text{ if } y_i^* > 0, \quad y_i = 0 \text{ if } y_i^* \leq 0 \end{cases}$$

식 (1)의 x_i 는 청년 창업농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를 나타낸다. 또한, y_i 는 관찰되는 청년 창업농의 소득이며 y_i^* 는 이와 관련된 관찰되지 않는 잠재 소득(latent variable)이다. 청년 창업농의 관찰되지 않는 잠재소득이 0보다 큰 경우 창업농의 소득은 연속 변인으로 관찰되며 잠재소득이 0과 같거나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관찰된다고 가정한다. $\Phi(\cdot)$ 을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

4 분석 자료에서 0으로 처리된 값의 실제 관찰값은 모두 0이며 0보다 작은 값이나 결측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로 $\phi(\cdot)$ 를 표준정규분포의 확률분포함수로 정의하면 식 (1)의 우도 함수(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2) L(\beta, \sigma | \mathbf{y}, X) = \prod_{i=1}^n \left[\Phi\left(\frac{-\mathbf{x}_i' \beta}{\sigma}\right) \text{RIGHT} \right]^{I(y_i > 0)} \left[\frac{1}{\sigma} \phi\left(\frac{y_i - \mathbf{x}_i' \beta}{\sigma}\right) \text{RIGHT} \right]^{I(y_i = 0)}$$

식 (2)에서 $I(\cdot)$ 는 항등함수(identity function)를 나타낸다.

청년 창업농의 삶의 질 척도는 언급한 대로 5단계 리커트 척도인 매우 불만족, 불만족한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하는 편으로 측정했으므로 순위로지스틱(ordered logistic regression) 모델을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McCullagh 1980; Greene, W. 2008). 회귀 분석 후 각 변인에 대한 오즈비(odds ratio)를 추정하였다. 회귀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순위로지스틱 모델은 다음과 같다.

$$(3) \begin{cases} z_i^* = \mathbf{x}_i' \beta + \varepsilon_i, \varepsilon_i \sim N(0, \sigma^2) \\ z_i = k_k \text{ if } \alpha_{k-1} < z_i^* \leq \alpha_k, k \in \{1, \dots, 5\}, \alpha_0 = -\infty, \alpha_5 = \infty \end{cases}$$

식 (3)의 x_i 는 청년 창업농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설명 변인을 나타낸다. 또한, z_i 는 관찰되는 청년 창업농의 삶의 질 척도이며 z_i^* 는 이와 관련된 관찰되지 않는 잠재 삶의 질 척도이다. 식 (3)에서 $\alpha_k, k \in \{1, \dots, 5\}$ 는 분기점(cut point) 또는 한계점(threshold)을 의미한다. 즉 잠재 삶의 질이 특정 범위 안에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리커트 척도로 관찰된다고 가정한다. 분기점 또는 한계점은 모델 내에서 다른 매개 변인과 함께 추정된다. 식 (3)의 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4) L(\beta, \sigma, \alpha | \mathbf{y}, X) = \prod_{i=1}^n \prod_{y_i=k}^5 \left[\Phi(\alpha_{k-1} - \mathbf{x}_i' \beta) - \Phi(\alpha_k - \mathbf{x}_i' \beta) \text{RIGHT} \right]^{I(y_i = k)}$$

이 연구에서는 추리 통계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5% 수준에서 판단하였다.

4. 분석 결과

청년 창업농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된다<표 3>. 청년 창업농의 평균 연령은 29.3세이며 여성비율은 6.5%로 낮았다. 기혼 청년 창업농은 39.1%이고 세대원 수는 평균 3.5명이며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청년 창업농은 85.3%로 높았다. 청년농 중에서 승계농의 비율은 68.4%, 평균 영농경력은 5.06년, 평균 영농면적은 7,276평으로 나타났다.

청년 창업농의 농업 소득과 농가 소득 관련 변인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된다<표 3>. 우선 창농 과정 변인과 관련하여 청년농의 농업 소득과 농가 소득⁵이 높을수록 승계를 통한 창농 비율이 높았다. 농업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청년농 중 승계자의 비율은 64.8%였으나 고소득은 그 비율이 77.3%까지 증가하였다. 창농 자금 규모도 청년농의 농업 소득과 농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농업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청년농의 평균 창농 자금 규모는 7천 354만 원이었으나 고소득 청년농은 2억 5천 573만 원에 달하였다. 또한, 농업 소득과 농가 소득이 고소득인 청년농의 경우 창농 전 법인 경험 비율이 높았다. 농업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 청년농의 22.2%가 창농 전 농업법인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고소득 청년농은 그 비율이 30.3%에 달하였다. 그러나 창농 교육 기간의 경우 농업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 기간이 길었으나 농가 소득의 경우 중간소득 청년농의 교육 기간이 가장 길었다. 농업 소득을 기준으로 본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청년농의 평균 농업 교육 시간은 각각 1.705년, 1.955년, 1.959년이었으나 농가 소득을 기준으로 본 중간소득 청년농의 평균 교육 기간은 2.036년으로 고소득 청년농의 1.885보다 높았다. 농가의 경영 특성 변인과 관련하여 청년농의 농업 소득과 농가 소득이 증가할수록 부기 기장을 하는 청년농의 비율이 높았다. 농업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청년농의 27.3%만이 농가 경영을 위하여 부기 기장을 하였으나 고소득 청년농은 그 비율이 47.9%로 크게 증가하였다. 농업법인 참여 비율도 농업 소득 및 농가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농가 소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농업법인의 참여 비율이 중간소득의 청년보다 높았다. 농업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청년농의 농

5 농업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은 중위소득(2천만 원) 미만, 중간소득은 중위소득 이상 3분위 소득(7천만 원) 미만, 고소득은 3분위 소득 이상으로 정의함. 또한, 농가 소득은 농업 소득, 농외소득, 기타 소득의 합산 소득으로 저소득은 중위소득(4천만 원) 미만, 중간소득은 중위소득 이상 3분위 소득(1억 원) 미만, 고소득은 3분위 소득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업법인 참여율은 33.3%, 34.6%, 그리고 35.3%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가 소득을 기준으로서는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청년농의 참여율은 33.0%, 32.7%, 그리고 40.2%로 저소득 청년농의 참여율이 중간소득 청년농의 참여율보다 약간 높았다.

표 3. 청년 농업인의 농업 소득 및 농가 소득별 관련 변인 기초통계량

관련 변인	농업 소득 ¹⁾			농가 소득 ²⁾			합계
	저소득	중간 소득	고소득	저소득	중간 소득	고소득	
표본 수	216	127	119	276	104	82	462
개인 특성							
연령(평균)	28.194	30.622	29.950	28.656	30.712	29.756	29.314
여성(비율)	0.083	0.039	0.059	0.072	0.048	0.061	0.065
세대원 수(명)	3.542	3.370	3.630	3.464	3.615	3.573	3.517
기혼(비율)	0.296	0.504	0.445	0.333	0.500	0.451	0.392
대졸 이상(비율)	0.815	0.858	0.916	0.812	0.913	0.915	0.853
농지 특성							
농지 면적(천 평)	4.588	7.303	12.128	4.981	8.199	13832	7.276
시설 면적(천 평)	0.234	0.594	1.453	0.286	0.942	1.487	0.647
가축 사육 두수(천 마리)	0.332	5.335	6.865	0.611	5.598	9.943	3.390
창농 과정							
승계(비율)	0.648	0.661	0.773	0.659	0.654	0.805	0.684
창농 교육 기간(년, 평균)	1.705	1.955	1.959	1.751	2.036	1.885	1.839
창농 자금 규모(천만 원, 평균)	7.354	8.817	25.573	7.355	10.424	32.161	12.449
법인 경험(비율)	0.222	0.291	0.303	0.236	0.250	0.366	0.262
영농경력	3.921	5.701	6.454	4.312	5.981	6.427	5.063
농가 경영 역할							
종업원(비율)	0.148	0.071	0.042	0.138	0.029	0.061	0.100
현 경영주(비율)	0.384	0.346	0.420	0.370	0.433	0.366	0.383
일부 책임 경영(비율)	0.468	0.583	0.538	0.493	0.538	0.573	0.517
농가 경영 특성							
부기 기장 여부(비율)	0.273	0.362	0.479	0.301	0.356	0.512	0.351
농업 법인 참여 여부(비율)	0.333	0.346	0.353	0.330	0.327	0.402	0.342

주 1) 저소득=중위소득(2천만 원) 미만; 중간소득=중위소득 이상 3분위 소득(7천만 원) 미만; 고소득=3분위 소득 이상

2) 저소득=중위소득(4천만 원) 미만; 중간소득=중위소득 이상 3분위 소득(1억 원) 미만; 고소득=3분위 소득 이상

자료: 저자 작성

청년 창업농의 삶의 질 만족도 관련 변인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된다<표 4>. 우선 지역연대 특성과 관련하여 삶의 질에 만족하는 청년농일수록 멘토 또는 조연자가 존재하였다. 삶의 질에 매우 불만족한 청년농의 65.0%가 멘토 또는 조연자가 존재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삶의 질에 매우 만족하는 청년농은 그 비율이 80.1%로 크게 증가하였다. 삶의 질에 만족하는 청년농일수록 대체로 지역의 기대가 높은 편이며 지역 갈등 비율도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삶의 질에 매우 불만족한 청년농의 경우 지역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0%에 불과하나 삶의 질에 매우 만족하는 청년농의 경우 이 비율이 75.0%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삶의 질에 매우 불만족한 청년농의 40.0%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삶의 질에 매우 만족하는 청년은 오직 20.0%만이 갈등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왕래가 잦을수록 청년농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결과도 관찰된다. 예를 들어, 삶의 질에 매우 불만족한 청년의 40.0%가 지역 주민과 거의 왕래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지만, 삶의 질에 매우 만족하는 청년농의 경우 오직 11.7%만이 거의 왕래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소득 관련 변인도 청년농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삶의 질에 만족하는 청년농일수록 농가 소득이 증가하나 매우 불만족한 청년농의 경우도 농가 소득이 매우 만족하는 청년농 다음으로 높았다. 삶의 질에 불만족한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년농의 평균 농가 소득은 각각 6억 88만 원, 7천 289만 원, 9천 708만 원, 1억 5천 637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삶의 질에 매우 불만족한 청년농의 경우 농가 소득이 1억 4천 215만 원에 달하였다. 또한, 농가 소득으로 생계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삶의 질에 만족하는 청년농일수록 대체로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매우 불만족한 청년농의 경우도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삶의 질에 매우 만족하는 청년농의 85.0%가 농업 소득으로 생계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비율은 감소하여 삶의 질에 만족하는 편, 보통, 불만족한 편인 청년농의 62.5%, 53.8%, 28.8%였다. 그러나 삶의 질에 매우 불만족인 청년농은 절반 정도가 농업 소득으로 생계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 청년 농업인의 삶의 질 만족도별 관련 변인 기초통계량

관련 변인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합계
표본 수	20	52	171	159	60	462
개인 특성						
연령(평균)	28.950	29.615	29.386	28.918	30.017	29.314
여성(비율)	0.000	0.077	0.094	0.044	0.050	0.065
세대원 수(명)	2.950	3.192	3.380	3.704	3.883	3.517
기혼(비율)	0.250	0.327	0.398	0.377	0.517	0.392
대졸 이상(비율)	0.900	0.885	0.842	0.843	0.867	0.853
지역연대						
멘토의 유무(비율)	0.650	0.712	0.801	0.843	0.917	0.814
주민 왕래(비율)	0.400	0.269	0.251	0.164	0.117	0.212
지역 활동 참여(비율)	0.600	0.481	0.550	0.453	0.317	0.481
지역의 기대(비율)	0.300	0.404	0.310	0.610	0.750	0.481
지역 갈등(비율)	0.400	0.404	0.316	0.233	0.200	0.286
영농경력(평균)	5.650	4.808	4.830	4.818	6.400	5.063
소득						
농업 소득(천만 원, 평균)	8.955	3.761	4.169	5.953	10.560	5.774
농가 소득(천만 원, 평균)	14.215	6.088	7.289	9.708	15.637	9.370
생계 가능 여부	0.500	0.288	0.538	0.623	0.850	0.578

자료: 저자 작성

창업농의 소득 관련 변인 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표 5>. 농업 소득은 농지면적, 시설면적, 승계 여부, 창농 자금 규모, 영농경력, 농업경영역할, 부기 기장 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5% 수준)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농가 소득은 농지면적, 승계 여부, 창농 자금 규모, 법인 경험, 영농경력, 농업경영역할, 부기 기장 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5% 수준)하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승계를 통한 창농 가구가 농지를 사거나 임차, 또는 농업 관련 임금 노동자로 시작한 신규 창농 가구보다 높은 수입을 가졌다. 추정 결과, 승계 창농 가구는 신규 창농 가구보다 농업 소득으로 약 1,685만 원, 농가 소득으로 약 2,574만 원 높았다. 둘째, 창농 준비 자금의 규모가 농가의 농업 및 농가 소득과 깊은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추정 결과, 청년 창업농이 0.1만 원 더 많은 준비 자금을 확보할수록 농가의 농업 소득은 약 38만 원, 농가 소득은 약 44만 원 증가하고 그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경영 장부 기록 여부가 청년 농업인의 농업 및 농가 소득에 깊은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추정 결과, 농업 경영과 관련하여

부기 기장을 하는 농가의 농업 소득은 그렇지 않은 농가의 농업 소득보다 약 1,1918만 원 높았다. 또한, 부기 기장을 하는 농가의 가구 소득도 그렇지 않은 농가의 가구 소득보다 약 3,400만 원 높았다. 마지막으로, 영농경력 또한 농가의 농업 및 농가 소득과 깊은 연관성이 존재하여 영농경력이 증가할수록 농가의 소득은 증가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5. 청년 농업인의 농업 소득 및 농가 소득 관련 변인 회귀 분석 결과

관련 변인	농업 소득(천만 원)			농가 소득(천만 원)		
	한계효과 ³⁾	추정계수	표준오차	한계효과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특성						
연령(세)	-0.024	-0.040	0.131	-0.165	-0.246	0.159
여성	0.861	1.439	1.928	1.111	1.657	3.038
세대원 수(명)	-0.156	-0.261	0.427	0.623	0.929	0.490
결혼 여부	0.781	1.305	1.458	-0.136	-0.202	1.935
대졸 이상	1.503	2.512	1.307	1.310	1.954	1.710
농지 특성						
농지 면적(천 평)	0.065	0.109*	0.055	0.134	0.200*	0.094
시설 면적(천 평)	0.327	0.547**	0.212	0.305	0.454	0.300
가축 사육 두수(천 마리)	0.023	0.038	0.022	0.013	0.020	0.019
창농 과정						
승계	1.685	2.816**	1.002	2.574	3.839**	1.399
창농 교육 기간(년)	0.132	0.221	0.294	0.012	0.018	0.430
창농 자금 규모(천만 원)	0.038	0.064**	0.023	0.044	0.065*	0.028
법인 경험	1.010	1.687	1.459	2.902	4.328*	1.812
멘토의 유무	1.168	1.952	1.620	1.537	2.292	1.948
영농경력						
영농경력(년)	0.842	1.408**	0.456	0.970	1.446**	0.537
영농경력 제공	-0.032	-0.054*	0.024	-0.035	-0.052*	0.024
농가 경영 역할(종업원)						
현 경영주	2.544	4.494*	1.923	3.325	5.261*	2.279
일부 책임 경영	1.634	3.010	1.739	2.862	4.584*	2.215
농가 경영 특성						
부기 기장 여부	1.918	3.205**	1.190	3.400	5.070**	1.646
농업법인 참여 여부	0.396	0.662	1.328	0.271	0.404	1.717

주 1) ** p<0.01; * p<0.05;

2)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를 계산함.

자료: 저자 작성

창업농의 삶의 질 만족도 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표 6>. 지역연대 특성 중 멘토의 유무, 지역 활동 참여 여부, 지역의 기대 여부, 지역 갈등의 유무와 소득 특성 중 생계 가능 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5% 수준)하게 삶의 질 만족도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인 특성과 영농경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농업 경영에 있어 지역연대 관련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첫째, 멘토의 유무가 청년농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추정 결과, 청년농이 경영상 문제에 대하여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나 조직이 있으면 그러한 멘토나 조직이 없는 청년농에 비해 높은 삶의 질 만족도를 보일 확률이 약 1.860배 또는 약 1.876배 높았다. 둘째, 지역 활동 참여의 중요성이다. 추정 결과, 각종 농업 관련 단체의 임원이나 위원으로 활동한 청년농은 그렇지 않은 청년농에 비해 삶의 질에 만족할 확률이 약 1.491배 또는 약 1.498배 높았다. 셋째, 지역 갈등의 여부가 청년 창업농의 삶의 질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정 결과를 보면, 창업농이 농업 경영 지역의 마을 주민과 갈등(말다툼, 싸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경험한 적이 없는 창업농보다 낮은 삶의 질 만족도를 보일 확률이 약 0.566배 또는 약 0.565배 낮았다. 넷째, 지역의 기대와 삶의 질 만족도의 관련성이다. 추정 결과를 보면, 지역 농업의 일꾼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 청년농이 그렇지 않은 청년농에 비해 높은 삶의 질 만족도를 보일 확률이 약 2.660배 또는 2.692배 높았다. 마지막으로, 소득 관련 변인도 청년농의 삶의 질에 깊은 연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 관련성은 농가 소득의 규모가 아니라 농업 소득으로의 생계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추정 결과, 농업 소득으로 생계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농가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농가보다 높은 삶의 질 만족도를 보일 확률이 약 2.624배 또는 약 2.674배 높았다.

표 6. 청년 농업인의 삶의 질 만족도 관련 변인 회귀 분석 결과

관련 변인	삶의 질 만족도(농업 소득) ²⁾			삶의 질 만족도(농가 소득) ³⁾		
	오즈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즈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특성						
연령(세)	0.983	-0.017	0.023	0.983	-0.017	0.023
여성	0.700	-0.357	0.350	0.703	-0.352	0.352
세대원 수(명)	1.128	0.120	0.067	1.128	0.120	0.066
결혼 여부	1.498	0.404	0.214	1.507	0.410	0.213
대졸 이상	0.896	-0.110	0.230	0.904	-0.101	0.229
지역연대						
멘토의 유무	1.860	0.621**	0.238	1.876	0.629**	0.237
주민 왕래	0.693	-0.367	0.234	0.692	-0.368	0.235
지역 활동 참여	1.491	0.399*	0.189	1.498	0.404*	0.033
지역의 기대	2.660	0.978**	0.201	2.692	0.990**	0.202
지역 갈등	0.566	-0.569**	0.203	0.565	-0.570**	0.203
영농경력						
영농경력(년)	0.936	-0.067	0.058	0.940	-0.062	0.057
영농경력 제곱	1.005	0.005	0.003	1.004	0.004	0.003
승계	0.961	-0.040	0.201	0.966	-0.034	0.201
소득						
농업 소득(천만 원)	1.003	0.003	0.011			
농가 소득(천만 원)				0.999	-0.001	0.008
생계 가능 여부	2.624	0.965**	0.186	2.674	0.984**	0.185

주 1) ** p<0.01; * p<0.05;

2) 1=매우 불만족; 2=불만족하는 편; 3=보통; 4=만족하는 편; 5=매우 만족하는 편; 농업 소득을 이용함.

3) 1=매우 불만족; 2=불만족하는 편; 3=보통; 4=만족하는 편; 5=매우 만족하는 편; 농가 소득을 이용함.

자료: 저자 작성

5. 결론

이 연구는 청년 창업농의 농업 소득, 농가 소득에 영향을 주는 변인 그리고 삶의 질 영향을 주는 변인을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년농 중에 승계 창업자가 신규 창업자 보다 높은 수입을 가진다. 승계농이 신규 창업농보다 높은 영농 성과와 소득을 보이느냐와 관련하여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마상진·김강호 2010). 농가 경영의 승계는 농지나 자금과 같은 재산 상속과 더불어 경영교육과 같은 역량 전수가 되어, 정착기 초반에 신규 창업자보다 유리할 수 있다(이성호 외 1995; Barclay et al. 2007). 하지만 부모의 경영기법이나 철학이 변형되지 않고 자식 세대에게 전수되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기에 정착 이후 새로운 시장 탐색이나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Koh 2001). 이 연구에서는 전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부모의 경영기반 전수 및 이들로부터 전수받은 농업 관련 지식 및 기술의 중요성은 신규 창업자에 대한 체계적 농업 교육과 더불어 은퇴한 숙련 농업인이 신규 창업농의 농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 농업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창농 준비 자금의 규모가 청년농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선행 연구(박문호·오내원·임지은 2012; 마상진·정기환 2008)가 신규로 영농 창업을 하는 이들의 창농 초기 소득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는 창농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확보하기 전에 창농 과정에서 소요되는 농지 및 축사의 임대·구매비용과 초기 정착비로 생활비 및 주거비 등의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창농 준비 자금의 중요성과 함께 영농경력 또한 청년농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Johnson et al.(2001)의 연구와 연계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Johnson et al.(2001)은 청년농의 정착단계를 예비단계와 초보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Johnson et al.(2001)의 모든 이론적 논의내용을 분석에 직접 설명하지는 못하였으나, 청년농의 창농과정 관련 변수와 영농경력을 변인으로 추가하여 이를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농의 창농 과정에서 효율성과 영농경력이 청년농의 소득

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청년농의 충실한 정착 및 영농 준비와 이를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이 실제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경영 장부 기록 여부는 청년농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마상진·박대식·김강호(2010)와 마상진 외(2013)는 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조사에서 경영·회계장부 작성이 영농 규모 및 수입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최윤지 외(2003)가 농가의 재무관리·금융 지식이 농가 소득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을 주기에 이를 위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효율적 영농을 위해 전체 경영에 대한 재무적 통제 가능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농가가 경영 장부를 기록함으로써 재무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청년농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윤순덕 외(2017)는 귀농·귀촌인 중에 11.2%가 역 귀농·귀촌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마상진 외(2016)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에서처럼 청년농의 농촌 정착의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박문호 외(2012)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을 원인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역 주민의 선입견 및 텃세와 더불어 농촌사회에 대한 귀농·귀촌인의 이해 부족을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었다.

여섯째, 지역사회에서 청년농에 대한 기대와 관심, 멘토의 유무 등과 같은 청년농의 농촌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청년농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이는 허철무·하규수(2014)가 지역사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귀농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 연구 분석 결과, 지역사회로부터의 기대, 멘토의 유무는 청년농 삶의 질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마상진·정기환(2008), 김철규 외(2011), 김정섭·성주인·마상진(2012) 등에서는 신규 취농 또는 귀농·귀촌 정착에 있어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의 편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마상진 외(2015)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갈등은 귀농·귀촌인 연수가 쌓이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귀농·귀촌인의 유입으로 인한 다양성의 증가가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청년농의 정착과 관련하여 정착 초기 일정 기간 사회적 관계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농가 소득의 절대적 규모보다 농업 소득으로의 생계 가능성이 청년농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삶의 질 만족의 중요한 요인이고, 허철무·하규수(2004)의 연구에서도 귀농인은 고소득일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농의 경우 단순 소득 규모

는 오히려 삶의 질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보다는 지역 생활비, 초기 안정기까지의 기초생활비용 등의 농가 가용 소득 또는 경제적 자립 여부가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도시 고용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농촌적 삶에 대한 선호 경향이 높아지면서 연령과 세대를 불문하고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정 당국의 새로운 후계농 정책(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청년세대의 농업·농촌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혁신인력의 확보와 농촌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통계청의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DB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청년농 관련 정책을 설계하기에는 자료의 대표성이나 조사 항목 등에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추후에 청년들이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농의 성공정착을 소득과 삶의 질 만족이라는 두 가지(양적, 질적) 관점에서 보고 자기 보고식 설문 조사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이 0인 다수 사례에 대하여서는 의미하는 바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힘들었다. 삶의 질 만족도를 한 개 문항(5점 리커트 척도)으로 측정하다 보니, 다양한 삶의 질의 영역(교육, 보건, 복지, 문화, 여가, 환경, 안전 등)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부족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공적 농촌 정착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측정을 하여 이 연구의 결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 문헌

- 강대구. 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농림부.
- 강희숙·이도희. 2004. “농촌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충남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제16권. pp. 201-225. UCI: G704-001339.2004.16..004
- 권오상·강혜정. 2013.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4권 제2호. pp. 75-93. UCI: G704-000586.2013.54.2.001
- 김숙영·손신영. 2012. “농촌 여성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노인간호학회지』 제14권 제2호. pp. 91-98. UCI: G704-SER000008641.2012.14.2.002
- 김정섭·성주인·마상진. 2012.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KREI 농정포커스』 제13호.
- 김정호·김정희·박해창·금경연. 2016.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R30. (사)환경농업연구원.
- 김정호·마상진. 2005.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과제』. R5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제안·채종훈. 2009. “농가유형별 소득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4호. pp. 1641-1658. UCI : G704-001438.2009.22.4.022
- 김철규·이혜진·김기홍·박민수. 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김현수·허영준·마상진·김명찬. 2014. 『중장기 농업인력 육성대책 수립 연구』.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
- 문승태·김소라. 2012. “귀농인의 삶의 질 인식 수준.”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4권 제2호. pp. 1-21. doi: 10.23840/agehrd.2012.44.1.1
- 마상진·김강호. 2010. “신규 취농 진입장애요인과 영농성과의 구조적 관계: 창업농과 승계농의 비교.” 『농촌경제』 제33권 제4호. pp. 1-18. UCI: G704-000576.2010.33.4.005
- 마상진·김경인. 2017.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C2017-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박대식·김강호. 201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 C2010-5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박대식·박시현·최용욱·남기천·남승희·최윤지. 2015. “귀농·귀촌 시기별 귀농·귀촌 과정 및 경제·지역사회 활동 실태 변화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7권 제2호. pp. 1-21. doi: 10.23840/agehrd.2015.47.2.1
- 마상진·오내원·김경덕·남기천. 2013. 『정예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C2013-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정기환. 2008.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방안』. R58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정은미·김경인. 2017. 『고령화 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R8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동열·정태화·장명희·김영생·김민규. 2012. 『농업계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창업률 제고를 위한 직종 및 직무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공주·윤순덕·강경하.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제12권 제4호. pp. 63-76. UCI: G704-001610.2006.12.4.002
- 박문호·오내원·임지은. 20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방안』. R6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옥임·김정숙·정영해. 2004. “농촌지역 중년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36권 제4호. pp.89-99. UCI: G704-000464.2004.36.4.002
- 서규선·변재면. 2000. “U턴 귀농자를 위한 장·단기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7권 제1호. pp. 137-153. 한국농촌지도학회.
- 성주인·김성아. 2012. 『제9장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E04-2012. pp. 239-2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성호·김정호. 1995. 『농가의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제영·김왕준·이찬·김성기·박주형·정성수·하연섭·주윤직·한유경·남수경·박상완·정찬영·마상진·최수정.
2015. 『농업 직업교육체제 개편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정진화·노재선·조현정. 2013. “한국농가의 고령화와 농가소득에의 영향.” 『농업경제연구』 제54권 제2호. pp. 55-74.
UCI: G704-000586.2013.54.2.006
- 최윤지·박영자·최현자. 2003. “농가 재무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농가 재무관리 실태 및 재무정보.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4권 제2호. pp. 15-27.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UCI:
G704-001337.2003.14.2.004
- 최재혁·고석남. 2005. “한국의 농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19권 제3호. pp. 1139-1159.
UCI: G704-001438.2005.18.3.009
- 허철무·하규수. 2014. “귀농자의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2호. pp. 237-248.
doi: 10.16972/apjbve.9.2.201404.233
- 홍성권·김재현·김종진·장주연·태유리. 2013. “도시민과 귀촌인의 삶의 만족도.” 『농촌계획』 제19권 제4호. pp.
237-248. doi: 10.7851/ksrp.2013.19.4.237
- Amemiya, T. 1973. “Regression analysis when the dependent variable is truncated normal.”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vol. 41, no. 6, pp. 997-1016. doi: 10.2307/1914031
- Barclay, E., Foskey, R. and Reeve, I. 2007. “Farm Succession and Inheritance: Comparing Australian and International
Trends.” Rural Indust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 Greendale, M., Bowlan, M., Hering, D. and Ruhf, K. 2004. *Policy Tool Kit*. NESFI.
- Greene, W. 2008. “Econometric Analysis, Six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 Johnson, S. E., Bowlan, M., Ruhf, K. and Sheils, C. 2001. *Exploring the Concept of Farming Career Paths*.
Belchertown, MA: The New England Small Farm Institute.
- Koh, S. 2001. “The Social Reproduction Crisis of Farm Succession in South Korea: A Riverside Village Case Study.”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24, no. 1, pp. 31-63.
- McCullagh, P. 1980. “Regression models for ordinal data.”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pp. 109-142. doi: 10.1111/j.2517-6161.1980.tb01109.x
- Reeve, I. and Stayner, R. 2006. *Preparing Entrants to Farming: Scoping Programs and Strategies*. RIRDC.

원고 접수일: 2018년 12월 25일
원고 심사일: 2019년 1월 10일
심사 완료일: 2019년 3월 14일